

병상有感



안 병 무

(한국신학연구소 소장)

언제부터인가 나는 삶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을 곧잘 되풀이한다. 살아오면서 '이것은 잠정적이다. 내 삶을 유보하는 기간이다'라고 가볍게 지나쳐 버렸던 일이나, 삶의 기간들이 실제로는 지울 수 없는 삶의 기록으로 내 삶의 한 모퉁이에 정좌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실감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배운다는 말은 학생들이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삶의 현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눈이 어두웠던 자기에 대해서 충격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지난 한달 동안 또 다시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뜰 기회가 있었다. 느닷없이 가슴에 통증이 생겨 지병인 심장병의 재발로 알고 앰블런스에 실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다. 온갖 검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심장 자체에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몇날을 경과하는 동안 담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나의 심장기능의 한계로 수술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담낭의 염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환자인 나는 소외되고 의사와 집사람의 결단에 내 운명은 맡겨진 것이다.

심장이 마취를 이겨낼 것인가 물을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죽을 수도 있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냉담한 내 아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온했다. 그래도 소위 유언이란 것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몇가지 일을 일러주었을 뿐 유언은 하지 않았다.

수술실로 옮겨졌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하려고 주변을 응시했다. 다른과 교수인 친구가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영원과도 같은 우정을 느꼈다. 그 다음 순간부터 나는 의식 밖의 세계로 가고 만 것이다. 무사히 수술을 끝낸 다음 며칠을 악몽과 싸웠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나도 간간이 때에 따라 피로우면서도 농담으로 걱정하는 마음들을 털어주려 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번갈아가며 내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데 내 기억은 꿈을 꾸는 것

처럼 몽롱하다. 수술 전후 10여 일은 완전 절식상태였다.

이 악몽 같은 경험에서 나는 다음 서너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후에 계속 생각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나를 내맡기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미 말한 대로 내 머리에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갔으나 의식상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자신을 내맡긴 것은 아니다. 아니 무엇에 의해서 나는 내맡겨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평소에 나는 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의식·무의식적으로 내 오관 전부를 동원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칠세라 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유사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전을 펴는 것이다. 이른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식상

으로 늘 그런 것은 아니면서도, 삶을 이른바 생존경쟁으로 알고 약육강식의 아귀다툼 속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수술 도중 죽을 수도 있다는 수술대에 나를 아무 방어도 없이 내맡긴 것이다. 이것은 생각은 비록 몽롱했으나 무엇인가 믿고 한 증거이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선 의식적 결단이다. 결국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대상을 뚜렷이 의식하는 믿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인가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동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지진으로 땅이 입을 벌릴 수도, 부실공사로 내가 탄 버스나 택시가 땅 속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나는 불안과 공포로 꼼짝도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전적으로 믿고 있다. 이 믿음은 종교적으로 정리한 것보다 훨씬 폭 넓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를 새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둘째로 사람은 같은 경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남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 주변에 맹장 또는 담낭수술을 한 친지들을 알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그때위 수술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오늘에 와서야 그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하는 반성을 거듭하게 됐다.

우리 숙담에 남이 염통 앓는 것이 내 손톱에 가시가 박힌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의 정곡을 찌른 말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남의 고통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설움을,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억울함을, 남자가 여자의 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렇길래 어떤 의미로나 위에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동정한다고 할 때 그

렇게 역겹게 여겨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즉 너를 위할 수 있을 때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고통하는 사람의 그 아픔이나 서러움이 고갈된 내 마음의 샘을 솟아나게 할 때만이 나는 나로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의 고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상실하였을 때 나 스스로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어떤 아픔이나 설움, 비명에 대해서 나를 열 때만 비로소 나는 해방되어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상에 참마음(진심)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불신풍조에 물들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워낙 많은 변절자를 보았고, 너무도 속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사회병리적으로 보는

습관에 젖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 아귀다툼하는 수라장으로 보인다. 이런 눈은 아이 목욕한 물이 더럽다고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게 한다. 아니! 아무리 세상이 욕심으로 오염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도 여기저기 진실한 참마음들이 있어 세상은 지탱된다. 나는 이번의 내 나름의 괴로운 과정에서 이런 진실을 많이 만났다. 가족을 위시하여 친구들, 후배들, 의사, 간호원들 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이런 진심에 접할 적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나는 성악설도 성선설도 옳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은 역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갑과의 관계에서 악마가 되는데, 을과의 관계에서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자신에게 새삼 다짐했다.

절대로 사는 날까지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말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살라! 